

LOCAL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미국 수출 나선 '완도 특산품' 해외시장 확대

영광, 풍년 농사 기원

내달부터 모내기 본격화

영광군은 최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한 군남면 반안리 정경운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올해 첫 모내기는 작년에 비해 나흘 정도 빠르며,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돼 6월 중순까지 9200ha의 논에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생종 벼 조기 재배는 4월 하순에 이양해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어 9월부터 발생하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으며, 벼가 쓰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확비용 증가,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추석 전 햅쌀 시장의 선점에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세일 군수는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여건이지만, 올해도 풍년농사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장흥,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박차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장흥군은 2040년 목표로 마련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뒀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역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상수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로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5년 주기로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으로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경비 절감 및 양질의 수질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량, 배수관 신설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가능성도 높여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 공급시설 안정화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

'장보고 한상 수상자 대회'서 1860만달러 수출 협약

신우철 군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위상 제고"

완도군이 지역 특산품을 미국 수출길을 열며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 참가해 1860만달러 규모의 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해외에서 성공한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경제·문화 영토 확장, 한인 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한상(韓商)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는 상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국, 4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세계 대회는 수상자들과 모국 기업인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인 김민선 몽아일랜드 컨서버토리 학장교와 2023년 장한상 어워드 대상 수상자인 장용진 키스뷰티그룹 회장의 공동 주최로 세계 대회가 열렸으며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김덕룡(사)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장한상 어워드 역대 수상자, 완도군 수출 업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워싱턴DC 연방의사당 매디슨 빌딩에서 '한국 문화의 날' 기념행사로 시작됐으며, 완도군 수출 업체와 군 관계자들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전복 절편, 조미김, 해조류 등 완도 특산품의 우수성과 맛을 알렸다.

특히 뉴욕 몽아일랜드 키스뷰티그룹 본



완도군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에 참가해 1860만달러 규모의 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에서 열린 전시 및 수출 상담회에는 다 시마전복수산(영), 완도바다(영), 해미원(영), 완도맘(영), ㈜바다명가, (유)하나물산, (유)해성인터내셔널, ㈜이노플릭스 어업회사법인, 성백전통식품 등 9개의 완도군 수출 업체가 참가해 미국 동부 지역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49건 진행했다. 이 결과 ㈜운문주아메리카와 200만

달러, 코레피아(Korepia)와 100만달러, Kylobal와 100만달러 등 총 1860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완도 전복과 해조류, 광어 가공제품, 해조류 원료 화장품 등의 미국 판로를 확보했다. 아울러 '제4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대회'는 완도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번 뉴욕 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 장보고 대사의 본고장인 완도군에서 개최될 4번째 대회는 Pre 완도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해 완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신안군 흑산면은 최근 상라산 정사에서 '동백의심' 선포식을 개최했다.

신안, 흑산도 '동백의심' 선포

전국 단일심 최대 99만㎡ 규모 동백 자생

신안군 흑산면은 지난 16일 상라산 정사에서 '동백의심'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흑산도 동백나무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흑산도 동백은 99만1735㎡(30만평)의 면적에 45만그루가 자생하며, 겨울에

서 볼까지 1억5000만송이의 동백꽃 오리가 피어올라 장관을 이룬다.

신안군 1심 1정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동백의심' 조성사업은 동백나무 군락이 이루는 자연경관의 보존과 함께 이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나주, 친환경 학교급식 138억 투입

초·중·고교 등 163곳...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나주시가 무상 학교급식으로 아동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 균형 잡힌 식습관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비 92억원, 친환경 농산물 등 식재료 지원비 46억원 등 총 138억원 규모다.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163개소, 학생 1만6975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검증된 식재료를 공급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무상급식비는 각 학교에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스

(EaT)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를 통해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는 매일 나주시학교급식실협의회에서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인 나주시조공법인(APC)을 통해 각 학교로 공급된다. 각 식재료는 매일 15점 내외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생산 농가, 공급업체 등 관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급 품목 다양화와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비 평

균단가도 인상해 지원한다.

한 끼니 당 무상급식비는 3647원으로 전년 대비 669원이 올랐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1209원으로 214원, Non-GMO 식재료는 119원으로 50원을 각각 인상했다.

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자부담분에 대해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의 교육복지 정책이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식재료 생산과 검증, 공급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5 목포 뮤직플레이' 준비 막바지

시,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내달 23~25일 개최

목포시는 5월 23~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목포 뮤직플레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 주재로, 관공문화교육공장과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축제 전반의 협업과 역할 분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 목포 뮤직플레이는 '목포, 음악이 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며, 공연·전시·체험존·브랜드관·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목포가 지닌 근대 대중음악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 고유의 음악자산을 활용한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안전관리, 교통 통제, 홍보 방안, 관람객 편의 시설 배치,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실무 부서들의 전략과 협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 뮤직플레이는 목포만의 매력을 음악을 통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